



흰 구름 부연 연하(煙霞) 푸른 것은 산람(山嵐)이라  
 천암 만학(千巖萬壑)을 제 집을 삼아 두고  
 नाम성 들명성 일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내리거니 장공(長空)에 떠나거니 광야(廣野)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질으락  
 사양(斜陽)과 섞이어서 세우(細雨)조차 뿌리는도다  
 남여(藍輿)를 재촉해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녹양(綠楊)에 우는 황앵(黃鶯) 교태(嬌態) 겨워 하는구나  
 나무 사이 우거져서 수음(樹陰)이 짙은 적에  
 백척 난간(百尺爛干)에 긴 조으름 내여 퍼니  
 수면(水面) 양풍(涼風)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된서리 걷힌 후의 산 빛이 금수(錦繡)로다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에 퍼졌는고  
 어적(漁笛)도 흥을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草木) 다 진 후의 강산(江山)이 묻혔거늘  
 조물(造物)이 험사하야 빙설(冰雪)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에 벌여졌어라  
 건곤(乾坤)도 풍요로워라 간 데마다 경이로다



< 해석 >

흰 구름과 뿌연 안개와 놀, 푸른 것은 산 아지랑이라.

산람, 계절감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제 집으로 삼아두고

나면서 들면서 아양도 떠는구나.

주체 - 구름, 의인법

날아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며 넓고 먼 하늘에 떠나기도 하고 넓은 들판으로 건너가기도 하며,

푸르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질기도 하며,

저녁놀과 쉬여 가랑비조차 뿌리는구나.

세우, 계절감

⇒ 면양정 주변의 춘경

뚜껑 없는 가마를 재촉하여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할 때에,

남여, 신분 표시물

푸른 버들에서 지저귀는 피꼬리는 (봄의 흥취를 못 이겨) 교태로운 소리를 내는구나.

계절감

나무와 억새가 우거져 수음이 짙어진 때에

나무 그늘, 계절감

높은 난간에서 긴 줄음을 내어 펴니,

물 위의 서늘한 바람은 그칠 줄 모르는구나.

⇒ 면양정 주변의 하경

된서리 견힌 후에 산빛이 수놓은 비단 같구나.

계절감

금수, 단풍

누런 구름(누렇게 익은 곡식)은 또 어찌 넓은 들에 펼쳐져 있는가?

은유, 계절감

고기잡이를 하며 부는 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불고 있는가?

⇒ 면양정 주변의 추흥

초목이 다 떨어진 후에 강과 산이 (눈 속에) 묻혀 있거늘,

조물주가 야단스러워 얼음과 눈으로 (자연을) 꾸며 내니,

빙설, 계절감

아름다운 구슬로 장식한 궁궐과 대,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와 눈 덮인 산이 눈 아래 펼쳐져 있구나.

은유

하늘과 땅도 풍성하구나.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경치로다.

⇒ 면양정 주변의 동경

작 자 : 송순(宋純)

연 대 : 중종 28년(1533)

형 식 : 가사(歌辭). 4·4(3·4)조를 기조로 한 4음보 연속체.

성 격 : 양반 가사. 은일 가사(隱逸歌辭), 서정 가사(抒情歌辭)

표 현 : 활유, 의인, 직유, 은유, 대구, 열거, 과장, 대조, 반복, 생략 등 다양한 수법 동원.

짜 임 : 서사·본사·결사의 3단 구성.

제 재 : 면양정의 자연의 승경(勝景)

주 제 : 대자연 속에서의 풍류와 군은(君恩)

의 의 : 강호가도(江湖歌道)를 확립한 노래로, 정극인의 '상춘곡'의 계통을 잇고, 정철의 '성산별곡 (星山別曲)'에 영향을 주었다.

#### 해 설

지은이가 41세로 관직에서 물러나 전라도 담양 제월봉 아래에 면양정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경치와 계절에 따른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노래한 것이다. <무등곡 無等曲> 이라고도 한다. 필사본 <잡가 雜歌>에 국문 가사가 전하고 지은이의 문집 <면양집>에 한역가사가 실려 있다. 2음보를 1구로 보면 모두 145구이며, 서사(序詞)·본사(本詞)·결사(結詞)의 3단락으로 되어 있다.

전원에 물러나 자연의 한가로움을 즐기며 심성을 수양하는 이른바 강호가도(江湖歌道)의 전형적인 노래이다.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반복·점층·대구법 등을 적절히 썼고 경치를 실감나게 묘사한 뛰어난 가사로 평가된다. 이수광의 <지봉유설>이나 홍만종의 <순오지> 등에서는 이 작품을 "호연지기를 유감없이 표현했으며, 어사(語辭)가 청완(淸婉)하고 유창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정극인의 <상춘곡 賞春曲>과 더불어 호남 가사 문학의 원류가 되며, 그 내용·형식·묘사 등에서 정철의 <성산별곡 星山別曲>·<관동별곡 關東別曲>에 영향을 미쳤다

